

특별기획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출범

의원들 내년 2월까지 상임위 소속되어 분야별 안전 토론·논의 등 활동

군산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과 사람, 현장이 만나는 '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1차 프로그램에서는 '군산 격변기 예술 활동과 삶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0일 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에서 1차 강연을 시작으로 17일에는 2차 강연, 20일에는 가족화 제작 미술체험, 27일에는 가족화 전시회로 진행된다.

이번 강연에서는 군산에서 피난지절을 보내며 예술세계를 추구했던 작가들과 근대 군산 예술가들을 조명해보고 그들의 시대적·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접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홈계(063-454-5632)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는 지난 16일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어린이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2016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청소년 의원 6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 멘토 위촉, 활동 다짐문 선서, 기념촬영에 이어 '어린이·청소년의원으로서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분회의 개최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분야별 안전을 토론·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아동권리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살펴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의원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어린이·청소년에게 필요한 제안, 어린이·청소년 행복예산 등에 대해 스스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되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위원과 어린이·청소년 전문가의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멘토가 어린이·청소년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토론과 안전 제안 등에 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

게 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보다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참여해 군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4년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비전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전담부서 설치, 조례 제정과 함께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 여름방학 토익·영어 말하기시관학교 운영

원광대학교가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여름방학 어학프로그램으로 '토익시관학교'와 '영어 말하기시관학교'를 운영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재학생 248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말까지 4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기숙사에 입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익 또는 영어 말하기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단기간에 토익 및 토익스피킹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매년 하계 및 동계 방학을 이용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어학 실력을 향상 시

킬 수 있어 매학기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수료식에서는 수업 태도와 성적, 기숙사 생활 등을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상장도 수여한다.

한편,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인력개발처(처장 박은숙 교수)는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취업교육, 취업학습동아리, 방학 중 집중교육, 해외장기어학연수, 해외현장실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해외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장대 한국전문대학 EXPO 참가

군장대학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국전문대학 EXPO'에 참가해 14일부터 16일까지 커피바리스타과, 농식품자원과, 패션주얼리디자인과가 직업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한국전문대학 엑스포는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이란 슬로건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직업체험 박람회이다.

이번 엑스포에서 군장대학교는 학과별로 재학생과 지도교수가 참여해, 직업체험부스를 찾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소개, 커피 로스팅 커피 드림, 패션 액세서리 제작 체험, 학생창업, 입시상담 등을 통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청 김지연·황선아 올림픽 출전 신고

24일 미국 출국 현지적응훈련후 브라질 입성 계획

익산시청 소속 국가대표 김지연, 황선아 펜싱선수가 지난 15일 정현을 익산시청에게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출전 신고를 했다.

두 선수는 오는 24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적응훈련을 하고 브라질 리우에 입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전 신고를 받은 정현을 익산시장은 그동안 태릉선수촌에서 피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의 격려했다. 정 시장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지난 런던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현재 익산시청은 4명의 선수가 펜싱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나 이번 대

회는 2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은 현지 일자로 8월 8일, 단체전은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기 펜싱감독은 "선수들이 국제대회 경험과 강한 체력으로 경기력 향상되고 있고 자신감이 넘쳐 메달 획득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해수청, 군산항 컨테이너 크레인등 100여개 26억원 투입 유지보수 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중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군산항 컨테이너 크레인, 횡간 부두시설과 격포항 여객터미널 등 약 10여개의 공사에 총 26억원을 투입 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부두 내 노후된 컨테이너크레인 27기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공사(약 10억원)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3억원을 투자해 보수할 예정으로 원활한 컨테이너 환적 유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두 내 화물이동이 원활하도록 아적장 등 포장보수(매년 3억원)와 부두 시설 보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격포항 여객터미널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해 대합실과 화장실 등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격포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엔젤요양병원 기독삼에원내 이동자립후원금 400만원 전달

익산 엔젤요양병원은 지난 15일 아동보육시설인 기독삼에원(원장 김명수)을 방문하여 꿈나무들의 자립을 위한 후원금으로 400만원을 전달했다.

익산 함열읍에 소재한 엔젤요양병원은 쾌적한 환경과 최신 의료시설을 구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치료와 필요한 취약계층 재활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김명수 기독삼에원장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년 정성어린 나눔의 손길을 보내 주시는 엔젤요양병원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행복한 시설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여름밤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를 걷는다

군산시-코레일관광개발 '군산야행 관광열차' 시범 운행

군산시의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으로 문화재 야행(夜行)프로그램과 연계한 '군산야행(夜行)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 관광상품은 군산야행(夜行)이 개최되는 오는 8월 13일에서 14일 사이 당일형과 1박2일형으로 수도권 소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신청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eiltravel.com) 및 전화(1544-7755)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산야행(夜行)'은 내달 13일과 14일 2일간 저녁 6시부터 '여름밤, 군산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야로(夜路, 밤에 걷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거리) ▲야사(夜史,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花, 한여름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정취) ▲야설(夜說, 밤에 펼쳐지는 문화공연) ▲야경(夜景, 밤에 비추보는 아름다운 군산의 문화유산)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군산야행(夜行)은 내달 13일과 14일 2일간 저녁 6시부터 '여름밤, 군산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야숙(夜宿,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등 밤에 느끼는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요자 중심의 고품격·맞춤형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근절 합동 캠페인

군산시는 비합리적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4일부터 15까지 군산여고와 제일고에서 군산시와 택시조합, 시내버스조합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이란 자가용을 이용하여 학교·학원 등 노선을 정해 불법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이며, 해당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안전한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게 된다.

시는 효과적인 캠페인 홍보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 했으며, 캠페인 당일에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박남균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합동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객운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유상운송 적발시 사업장 및 형사고발함으로써 교통운송 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보건소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시행

군산시보건소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으로,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가까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 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 두 가지 서비스를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백신은 HPV 2가 및 HPV 4가 백신이며, 접종은 1차 접종 후 6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이로써 그동안 1회 접종에 15~18만

원 가량 전액 본인 부담해야했던 접종비용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추가되면서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춘기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경시기 건강관리와 더불어 여성암 예방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예방접종을 잘 챙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